

‘불황의 악순환’...지역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4배 증가

최근 5년새 대출·연체액 모두 급증

광주·전남 개인사업자 지속적 감소

금리 인상·내수 부진 등 여파 진행형

최근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대출 규모와 연체액은 크게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는 광주 8만5천130명, 전남 13만2천335명으로 이는 통계청이 8월 기준으로 집계한 전체 자영업자 수(광주 13만9천명, 전남 28만8천명)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특히 대출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도 광주 4천929명, 전남 6천422명에

달했다.

또한 광주·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 45만명, 올해 42만7천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광주의 금융채무불이행 개인사업자는 2020년 1천313명에서 2025년 7월 4천929명으로 3.7배 늘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1천563명에서 6천422명으로 4.1배 증가했다. 불과 5년 만에 채무불이행자 수가 4배 넘게 된 셈이다.

전체 대출 규모도 급증했다.

2020년 광주는 18조7천619억원에서 올해 7월 24조7천888억원으로 1.3배, 전남은 같은 기간 19조6천894억원에서 30조7천628억원으로 1.5배가량 늘었다. 특히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대출금액은 같은 기간 광주 1천978억원에서 8천969억원으로 4.5배, 전남은 2천205억원에서 1조513억

원으로 4.7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은 줄고 원자재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늘어나면서 폐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행우 전남대학교 후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신용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비 침체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며 “폐업하면 대출 연장이 힘들어져 상환 압박에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영업을 이어가는 지역 자영업자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잔여 대출 거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예산 문제 등 미뤄지지 않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국제금값 연일 최고치 경신

미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여파로 안전자산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4천달러대에도 안착했다. 온스당 50달러선에 육박하며 14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9일 서울 시내 한금은행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공정·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광주청 조성 앞장”

김학선 제59대 광주지방국세청장 취임

김학선(57) 제59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했다. <사진>

9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일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게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반면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광주청”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호남지역은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 석유화학·건설경기 위축 등 제반 여건 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 진출기업 등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행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언급한 후 “납세자를 가족으로 여기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리겠다”고 덧붙였다.

었다.

김 청장은 불성실납세자에게 세정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악의적 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는 세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 침해 탈세, 자본시장 교란 행위, 지능적 역외 탈세 등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주가 고향인 김 청장은 충주고와 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공직에 입문해 흥성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서울국세청 감사관, 대전국세청 조사1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은성 기자

GICON, 문화콘텐츠 제작 세미나 성료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9일 “최근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지역 문화콘텐츠 현업인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포트폴리오 제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계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GCC사관학교 수료생을 포함한 취업 희망자 2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게임 개발사 웹툰 크래픽스 김동현 대표가 ▲게임 산업 인재상 ▲채용 포인트

▲자기 PR 전략을 주제로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2부에서는 브랜딩 전문가 이원찬 대표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성법 ▲면접 전략 ▲우수 사례 분석 등을 실용형 워크숍으로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준비 노

하우를 전했다.

이날 한 참가자는 “막연하게 준비하던 포트폴리오를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습으로 배우니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며 자신감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태호 기자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 3리터!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동! 작업장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생!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4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악화’

경기전망지수 92...전분기 대비 10 ↓

민생쿠폰 종료 등 소비 흐름 둔화 영향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이 4분기 체감 경기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지역 4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92’를 기록하며 전분기(102) 대비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준지(100)를 밑도는 수치로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민생소비쿠폰 사용 종료 등의 영향으로 소비 흐름이 둔화되면서 업계의 체감 경기가 다시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매출전망지수(102→84)와 수익전망지수(87→80)가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하면서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약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인건비·임차료·물류비 등 고정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 가격 인상 전가가 어려워 수익 구조 개선도 지연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75→50), 편의점(106→94)이 모두 ‘악화’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

다. 대형마트는 민생회복 쿠폰의 사용처 미지정과 온라인 구매 확대 등으로 소비자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며, 편의점 역시 쿠폰 종료 이후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백화점(100→100)과 슈퍼마켓(118→109)은 소비심리 회복 기대감, 명절 특수 수요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 전반의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백화점의 매출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업체의 70.2%가 ‘다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소비쿠폰을 경기 침체 속에 소비 진작의 긍정적인 수단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주요 소비 채널이 제외되면서 유통 전반의 매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소비쿠폰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9%가 ‘예’라고 답했으며, 이들 중 46.7%는 ‘사용처 확대’, 33.3%는 ‘금액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언급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채화석 상근부회장은 “소비심리 회복 지원과 구조적 비용 부담이 맞물리며 지역 유통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적인 소비 진작책에 머무르지 말고 유통 구조 혁신, 온라인 경쟁 대응, 비용 절감 지원 등 실질적인 산업 체질 개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남평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1, 6일로 끝나는 날

전국최초 퓨전시장 목사고을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5일장 영산포 풍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0, 5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NAJU 나주시** 광고문의 : 062)650-2099